"미국에 50개의 마퇴본부 지부가 설립되는 날을 기대합니다"

박태종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미주창립준비위원장

지난 11월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선 '미주마약퇴치운동본부'(이하 미주본부, KAFADA)의 창립식이 열렸다. '재중국 한국인회 마약퇴치운동본부' 이후 두 번째로 설립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이하 마퇴본부)의 해외 지부다. 미주본부의 설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한 박태종 창립위원을 지난 12월 22일 서울 선유동 마퇴본부 신관에서 만났다.

외로운 이민 생활로 마약에 물드는 이민 1.5세대

박태종 미주본부 창립위원의 본래 직업은 교회 목사다. 그간 마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마약류 중독 문제엔 끊임없이 눈과 귀를 열고 살아왔다. 젊은 시절, 가깝게 지내던 대학 동기 부부의 죽음이 그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.

"좋은 대학을 나와 가정도 꾸리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대학 동기 부부가 졸업 후 마약 중독에 빠졌고 결국 함께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'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' 하고 처음 느끼게 됐죠. 마약이 아까운 인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이지 않습니까."

박 창립위원은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조금씩 마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. 목사란 직업의 특성상 교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상담도 많이 했다. 그 과정에서 미국 내 한인의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꼈다. 그가 목격한 우리 교민의 마약류 중독은 막연한 개념의 이웃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. 실제 바로 내 옆집, 내 자식의 일이었다.

내 나라를 떠난 이민자의 생활은 외로운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. 이민 1.5세대나 2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. 외로움 속에서도 이민 1세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, 1.5세대 · 2세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낯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그들은 학교에서 이방인이란 이유로, 사회에선 소수민족이란 이유로 외면당한다. 그렇게 방황하다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. 타국에서 외로움 · 고독함에 물들기 쉬운 이민자의 처지는 알코올 · 게임 중독만큼이나 마약 중독에도 빠져들기 쉬웠다.

"학교에서 마약류 교육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약 투약 학생 중 엄청난 수의 한국 학생이 포함돼 있더라고요. 물론 학교에서도 마약류 투약 관리를 하지만 한인은 미국인과 또 다르잖아요. 미국에도 우리 교민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."

교민들 고민 해결할 단비 같은 기구의 탄생

마퇴본부가 머나먼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도움이 숨어 있다. 박 창립위원은 그 숨은 공로자 중 한 명이다. 미주본부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는 소소한 개인적 인연 외에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. 그러던 중 우연히 마퇴본부 해외지부 설립 계획을 듣게 됐고, 큰 고민 없이 미주본부 설립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들었다. 우리 교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.

그는 설립 구상 단계에서부터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미주본부 창립에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. 국내 거주 국민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 터 잡은 해외 동포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뜻을 구체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.

현재 미국에는 미주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연방조직을 중심으로 13개 주(州)에 작은 개념의 마퇴본부가 있다. 미국이 50개 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미국 전 지역의 우리 교민에게 마퇴본부의 도움이 닿게 하려면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. 하지만 그는 머지않아 50개 주 전체에 마퇴본부 지부가 설립되는 날이 오리라 강하게 믿고 있다. 미국 내 한인 사이에서 마퇴본부의 뜻에 공감하는 이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.

"미주본부의 설립 소식을 듣고 '드디어 우리 교민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기구가 생겼다'며 모두 좋아합니다. 그동안 한인의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했거든요. 마약퇴치운동은 개별적 운동이 아닌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야 하는데 미주본부의 설립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."

박태종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미주창립준비위원장
미국 아리랑대학 총장

사는 곳은 달라도 '한국인'이니까

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내 몇몇 주에선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. 성인임을 증명할 신분증만 있으면 지정된 업소에서 마리화나를 비롯한 대마류를 구입할 수 있다. 마약류라 하면 흔히 담배 형태로 흡연할 수 있는 제품만을 생각하지만 초콜릿 · 커피 · 사탕 등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. 그러다 보니 교민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호기심에 구입해 입국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. 우리나라는 마약류가 합법화된 곳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도 입국 시엔 엄격한 국내의 기준을 적용한다.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마약류 제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.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.

박 창립위원은 "국내 마퇴활동과 더불어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퇴치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 모두가 마약류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다"고 강조했다. 너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퇴활동만 잘 해서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.

그는 인터뷰 중간 중간에 '같은 코리안(Korean)이니까'라는 말을 자주 썼다.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아예 정착해 살고 있는 교민 모두가 결국은 국가적 틀에서 보호 · 관리해야 할 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. 같은 맥락에서 그는 미주본부가 앞으로 미국인에 맞춘 마약류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체계화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희망했다.

"사실 한국의 마약퇴치 프로그램 중 미국에서 건너간 것도 많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한국에 가면 한국인에게 꼭 맞는 형태로 변하죠. 미국에선 다양한 마약류 퇴치 프로그램을 수집 · 전송하고 한국에선 이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한국인에게 꼭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미주본부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전개시켜 나가야겠죠. 왜냐고요? 같은 코리안이니까요."